

## 日新堂 李天慶의 생애와 후대의 추승 활동

박 소 희\*

- I. 머리말
- II. 이천경의 가계와 생애
  - 1. 이천경의 가계
  - 2. 이천경의 생애
- III. 이천경 사후 추승 활동
  - 1. 이천경에 대한 인식과 기록의 추적
  - 2. 청곡서원의 건립과 문집 발간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일신당 이천경은 조선시대 단성현에 거주했던 남명의 문인이다. 같은 동문으로 오건·최영경·하항·김우홍·정구·하응도 등과 교류하였으며 남명 사후에는 이들과 함께 스승을 기리는 덕천서원의 창건을 논의하였다. 또 서원에서의 강론 및 원록 중수에도 참여하였다. 만년에는 일신당을 지어 학문연구에 매진하였고, 박민·이유열·권극량 등이 그에게 학문을 배웠다.

1610년(광해군 2) 이천경이 세상을 떠나자 남명학파의 많은 이들이 추모의 글을 보내왔다. 이 글에서는 이천경을 최영경·하항에 버금가는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객원교수 / thgml0819@hanmail.net

남명의 주요 문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으나 등용되지 못한 점 등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1623년(인조 1) 이천경이 공조참판에 추증되자 그의 행적 및 추모 문자 등 관련 기록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도는 행장·척언을 작성하였고 이현일은 묘도비명을, 이현경은 묘갈을 작성하였다. 이 중 이현일의 묘도비명에서는 정인홍과의 단절을, 이현경의 묘갈에서는 글 서두에 남명학파로서 이천경을 강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한편 이천경을 추모하는 공간도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1702년(숙종 28)에는 단성의 유림들이 그를 제향하는 청곡사를 건립하였다. 이후 19세기 전반 청곡서원으로 승원하였으며 1865년(고종 2) 중수가 이루어졌다. 청곡서원은 당시 입지가 약해지고 있던 士族들의 향촌 내 영향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었다. 또 1855년(철종 6)에는 『일신당집』을 간행하였는데, 이를 주관하고 있던 이방검 등은 『남명집』 개간 및 남명문묘종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즉 남명의 대표 문인이었던 이천경의 문집 간행과 청곡서원의 중수는 19세기 남명 현창사업과 궤를 함께 하고 있었다.

◆ 주제어

이천경, 함천이씨, 남명학파, 일신당집, 청곡서원

## I. 머리말

李天慶(1538~1610)의 본관은 함천, 자는 祥甫, 호는 日新堂이다. 이들 가문은 고려말 李云皓가 단성 所耳谷에 입향한 이래 현재까지 단성에 세거하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 3대가 연달아 문과에 급제하며 가문이 현달하였고, 이천경 때에는 그 효행과 학문의 뛰어남이 후세에 널리 전해졌다.

이천경은 20세에 남명을 배알하고 문인이 되었다. 남명 문인 중에도 비교적 연장자였던 그는 崔永慶(1529~1590)·河沆(1538~1590)·鄭述(1543~1620) 등과 교류하며 남명의 가르침에 따라 학문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특히 1590년(선조 23) 최영경·하항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남명 문인 중 원로로서 강론 활동에 참여하였고, 덕천서원의 원록을 수정한 바 있다. 노년에는 일신당에서 남명학파의 일원들과 교류하며 후학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이처럼 남명학파 내에서 그의 지위를 생각하면 그가 남긴 글 또한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전란과 화재를 겪으면서 글 대부분은 소실되고 말았다. 그렇다 보니 이천경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 역시 그의 문집인 『日新堂集』 해제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이다.<sup>1)</sup> 『일신당집』에도 이천경의 저술은 시 2수와 제문 2편이 전부라 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한계가 있다. 다만 문집에는 「연보」를 비롯하여 이천경 사후 그를 기리는 만시·제문류, 행장·묘도비문·묘갈 등과 제향처인 청곡서원과 관련된 글들이 일부 남아 있다. 이러한 자료는 후학들이 남명학파의 일원으로서 이천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통상 남명 문인 중에는 오건, 최영경, 하항, 정인홍, 정구, 김우옹 등의 재전문인이 비교적 많거나, 관련 문헌 자료가 풍부한 이들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반면 이천경은 남명 문인, 또는 『덕천사우연원록』

1) 강정화, 『『日新堂集』 解題』, 『南冥學研究』 22,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6.

이나 동시대에 활동했던 동문들의 문집 속에서 아주 간략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천경의 생애와 남명학과 내에서 그에 대한 인식,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후대의 추송 활동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남명 문인에 대한 개별 연구들이 축적됨으로써 향후 남명학과, 나아가 영남학과 연구의 외연 확대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이천경의 가계와 생애

### 1. 이천경의 가계

이천경은 합천이씨 전서공파로 시조는 통일신라 때 강양군에 봉해진 李開이다. 이개는 고려 건국 후 왕건에게 불복하여 嘉樹縣의 호장으로 강등되었다가 1018년(고려 현종 9) 강양군이 陝州로 승격되면서 합주 호장을 지냈다. 이때부터 그의 자손들은 합천을 관향으로 삼았다. 이후 호조전서를 지낸 10세 李守全이 강양군에 봉해지면서 전서공파의 파조가 되었다. 이수전에게는 李景芬·李景福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이경분이 이천경의 10대조가 된다.

대대로 합천에 세거하던 이들 가문은 이천경의 7대조 이운호 대에 단성 소이곡에 처음 거주하였다.<sup>2)</sup> 이후 그의 증손 李迪(1480~1526)이 하양현감 李孝敬의 딸과 결혼하면서 靑峴村으로 이거하였고, 그 아들 李圖南(1496~1567)이 金龜老의 딸 개성김씨와 결혼하면서 다시 원당면 내 원당으로 들어왔다. 그러다 18세기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있는 청현으

---

2) 李時黼, 『雲窓誌』, 「都山八坊考證」, “戶曹典書六皓始居 于丹城之都山里 所耳谷 …” 이운호는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戶曹典書를 지냈으며 부인 합천이씨는 門下侍郎 典法佐郎을 지낸 李天秀의 딸이다(『陝川李氏大同譜』, 뿌리정보미디어, 2005).



이운호는 李斯昉·李斯暄·李斯旼·李斯[日江] 4남과 2녀를 두었다. 이중 셋째 이사민이 이천경의 6대조다. 奉常大夫 寧越郡事를 지낸 이사민은 외동아들 李仲老와 2녀를 두었는데, 두 딸은 남평문씨 文承理·상주주씨 周復禮와 결혼하였다.<sup>4)</sup>

이중노의 아들 李伯孫은 이천경의 고조부로, 訓練院參軍을 역임하였다. 부인은 단성에 세거하던 姜行(1395~1470)의 딸 진양강씨이다. 이 가문은 강행의 증조부 姜允輔가 정몽주와 교유하였고,<sup>5)</sup> 조부 姜思近은 조선 건국 초 개성소윤을 역임한 바 있다. 단성에 세거하기 시작한 것도 강사근 대부터였다.<sup>6)</sup> 처부 강행은 세조 즉위 직후인 1455년(세조 1) 원 종공신 3등에 녹훈되었고<sup>7)</sup> 1467년(세조 13)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신이었다.

이중노와 진양강씨 사이에는 7남 1녀가 있었다. 그중 셋째 아들 이적이 이천경의 증조부이다. 이적은 어린 시절 단성에 거주하던 외숙부 姜文會에게 공부를 배우고<sup>8)</sup> 1513년(중종 8) 문과에 급제하였다. 도학과 문장으로 이름이 알려져 강우 지역을 대표하였으며 강좌의 李彦迪과 비견되기도 하였다.<sup>9)</sup> 평소 외숙부 밑에서 함께 수학한 진주 출신 金守敦·魚得江, 강문회의 아들이자 외사촌이었던 姜顯 등과 교유하였다.<sup>10)</sup>

4) 이사민의 딸들은 단성 인근 사족들과 결혼하였는데, 남평문씨 족보에 의하면 문승리는 합천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주복례는 족보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초계주씨(상주주씨) 周世候의 후손들이 이미 단성에 거주하고 있었고, 합천에는 이요당 周怡의 선대가 세거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사민은 단성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혼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趙秉憲, 『肅齋集』 권26, 行錄, <姜氏七世行錄>, “曾祖諱允輔, 號酒隱, 與圃隱鄭先生, 爲道義交, 祖諱思近, 入本朝, 官至開城小尹, 諡文忠公, 考諱國興, 官代言, 公自幼聰穎善屬文, 世祖丁亥, 李施愛亂, 與龜城君浚, 奉命討平, 命賜鞍馬與光陽月浦地, 特下手教曰, 此人子孫中, 或有殺害人命, 勿爲償命, 命勳錄其勳, 其立朝言論, 多有可觀者, 晚退江舍, 以書籍自娛, 每遇良辰, 與一代名賢, 載酒叙話於集賢殿, 人莫不敬慕.”

6) 김준형, 앞의 책, 36쪽.

7) 『세조실록』, 세조 1년(1455) 12월 27일 무진 3번째 기사.

8) 강문회는 1469년(예종 1) 문과에 급제한 뒤 성종 연간 師表로 추앙될 만큼 학덕이 높았으며 연산군의 폭정을 피해 고향 단성으로 내려와 있었다.

9) 李天慶, 『日新堂先生文集』 권上, <先系錄>.

이적과 안악이씨 사이에는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이도남이 이천 경의 조부이다. 이도남은 1516년(중종 11) 사마시에 합격하고 1533년(중종 28) 문과에 급제하였다. 성균관 박사·전적을 거쳐 춘추관 기사관, 사헌부 감찰, 공조좌랑, 예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또 어머니 봉양을 위해 영산현감·보성군수·창원부사·밀양부사 등 외직을 맡기도 했다. 이후 1561년(명종 16) 동래부사에 제수되어 선정을 베풀으로써 백성들이 공덕비를 세워주었다.<sup>11)</sup>

이도남은 중앙에 진출한 뒤 이언적·주세붕 등과 교류하였다. 특히 이언적과는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서로의 시에 차운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는데, 이는 다음 이언적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澄潭勝日喜同臨	좋은 날에 맑은 못을 함께 보니 즐거운데
源遠軒前更淨深	먼 물줄기 처마 앞에 이르러서 더욱 깊네.
伴月逍遙朝復暮	달을 짝해 아침저녁 한가로이 소요할 제
白雲巖上共無心	바위 위의 무심한 흰 구름이 함께하네. <sup>12)</sup>

주세붕 역시 교분이 두터워 이도남이 보성군수로 있을 때 직접 방문한 바 있다. 이때 둘은 郡樓에 올라 옛 선인들이 남긴 시들을 둘러보았다. 주세붕은 金克己가 쓴 시에 차운하였는데, “碧玉壺中の 객이 된다면 아름다운 풍경 그대와 함께 보는 것 마다하지 않네.”라고 하여 이도남과의 우애를 표현하였다.<sup>13)</sup>

10) 이 중 姜顯은 1517년(중종 12) 문과 급제 후 시간원 정언·형조판서·경연특진관 등을 지냈으며 대간 시절에는 이언적·황헌 등과 함께 척신이던 김안로를 논박했던 인물이다. 『중종실록』, 중종 32년 10월 27일 기사. ; 박소희, 「산청지역 남명학파의 규모와 동향」,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419쪽.

11) 李楨, 『龜巖集』 권1, 墓碣銘, <東萊府使李公墓碣銘>.

12) 李彥迪, 『晦齋集』 권2, 律詩 絕句, <次大鵬韻>. ; 한국고전종합DB 번역문 재인용.

13) 李天慶, 『日新堂先生文集』 권上, <先系錄>, “祖, 諱圖南, … 慎齋周先生世鵬, 素與公善有道義之交, 公守寶城時來訪於寶城登郡樓, 仍次金先生克己舊韻以贈公, 詩曰, 海城何處謫叅閑, 獨望雙鳧緩爾還, 樓近九霄瞻日下, 地連三島異人間, 已聞言偃絃歌政, 莫遣安仁鬢髮斑, 碧玉壺中如作客, 不辭往致共君看.”

한편 그와 개성김씨 사이에는 李光前·李光租·李光遠·李光同 네 아들이 있었다. 이 중 이광조는 그 아들 李命生 대에 진주로, 이광원은 순천으로, 이광동은 밀양으로 이거하면서<sup>14)</sup> 첫째 이광전만 단성에 남게 되었다. 이광전이 바로 이천경의 부친이다.

이광전(1517~1547)은 1543년(중종 38) 생원·진사시에 모두 합격하고 1546년(명종 1) 문과에 급제하였다. 특히 생원시에서 장원을 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나 그 명성이 높았다. 이로써 이천경의 합천이씨 가문은 3대가 연달아 문과에 급제하며 현달하였다. 이후 그는 승문원 정자를 역임하였으나 과거에 합격한 지 1년 만에 요절하였다.

이광전의 부인은 안동권씨 權逸의 딸로, 처조부는 權時敏(1464~1523), 처증조부는 權金錫(1447~1485)이다. 그의 처향은 본래 삼가현에 세거하다가 권금석 대에 단성으로, 처조부 권시민이 처향인 안음현으로 이주했고, 그 아들 권일이 다시 삼가로 이주해와 있었다. 권시민은 평소 남명 조식의 부친인 趙彦亨(1469~1526)과도 절친한 사이였고, 이러한 관계로 조언형은 권금석의 묘갈을 지어주었다.<sup>15)</sup>

또 이광전이 거주하던 단성현 원당에는 이광전의 어머니 개성김씨 가문과 인척관계로 안동권씨 權達가 들어와 있었다. 권규는 權時得의 아들이자, 권시민의 조카였다. 권시민이 남명의 부친과 교유하였다면, 권규는 남명과 증유하였고 그의 네 아들 權文著·權文顯·權文任·權文彦은 모두 남명의 문인이 되었다.<sup>16)</sup> 이 외에도 같은 합천이씨 가문에서 清香堂 李源(1501~1568)이 남명과 ‘네 가지(출생연도·지역·마음·덕)가 같은 벗’이라 칭할 정도로 교분이 두터웠다. 향후 이천경이 남명 문인이 된 배경에는 선대의 혼반과 동향 출신으로서 남명의 문인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었던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14) 『陝川李氏大同譜』, 뿌리정보미디어, 2005.

15) 『安東權氏家譜』, 「十九世諱金錫」.

16) 이광전의 어머니 개성김씨의 고모부가 영일정씨 鄭浣이고, 그 사이에서 나온 딸이 안동권씨 가문의 權達와 결혼하였다. 이러한 혼반을 계기로 이광전이 거주하던 단성현 원당면 내원당에는 개성김씨, 영일정씨, 안동권씨, 합천이씨 가문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다. 김준형, 앞의 책, 39쪽.



## 2. 이천경의 생애

이천경은 1538년(중종 33) 정월 14일 단성현 원당리에서 태어났다.<sup>17)</sup> 그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밝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다. 1542년(중종 37) 5세에는 증조부 이적에게 친자문을 배우고, 10세에는 부친상을 당하여 삼년상을 치르면서 예법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10대 중반까지는 어머니를 봉양하고 집안일을 담당하느라 공부에 매진하지 못했다.

연보에 의하면, 그가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시점은 1552년(명종 7) 15세 무렵이었다. 마음을 다듬고 강독하니 문리가 통했다고 하며, 19세 봄에는 『주역』을, 겨울에는 『서경』을 읽고 연구하였다.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의관을 정제하였고, 성현의 법을 배운 뒤에는 일상에서 그것을 실천하려 노력하였다.

이천경은 1560년(명종 15) 20세에 함천에 거주하던 二樂堂 周怡(1515~1564)의 딸과 결혼하였다. 처부 주이는 종숙이었던 주세봉이 우리 집안의 지주라 할 정도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다. 이때부터 주이는 경전을 연구하였고, 학문은 『효경』과 『가례』를 표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1551년(명종 6) 10월 서장관이 되어 중국에 갔을 때, 황제의 요청으로 益松에 비유한 시를 지어 그 명성이 중국 전역에 알려진 바 있다.<sup>18)</sup>

이후 주이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浩然亭을 짓고 학문연구에 매진하였다. 퇴계 이황도 주세봉의 『愼齋集』을 교정할 때 주이와 상의하여 고쳤다고 할 정도로 그의 명망은 높았다.<sup>19)</sup> 이처럼 당대 학문적으로 이

17) 이하 이천경의 생애는 『日新堂先生文集』 권1, 「年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8) 周怡, 『二樂堂先生逸稿』 권1, 詩, <謹步世宗皇帝益松韻(嘉靖三十年辛亥先生以書狀官赴京師)>, “반 자 되는 사기 화분 키 작은 소나무, 풍상 속 고절은 늙어서 불품없네. 하늘 높이 자라는 걸 안 배운 줄 알겠나니, 세상에선 끝음이 못 쓰임을 밝혀주네(半尺沙盆半尺松, 風霜孤節老龍鍾, 知渠不學干天長, 驗得人間直不容).”

19) 李象靖, 『大山集』 권51, 行狀, <承議郎行清洪道都事二樂堂周公行狀>.

름나 있던 주이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부인은 新行도 하기 전, 1561년(명종 16)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sup>20)</sup>

이천경은 상주주씨와 혼인한 1560년 가을 덕산에 있던 남명을 찾아 뵙고 제자가 되었다.<sup>21)</sup> 27세인 1564년(명종 19)에는 어머니의 명에 따라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으며 이듬해에는 남명에게서 대인군자의 학문과 鐵門關의 가르침을 받았다.<sup>22)</sup> 이후로는 수시로 남명을 배알하고 받들어 섬겼다. 같은 동문이었던 吳健(1521~1574)·최영경·하항·金宇顛(1540~1603)·鄭述(1543~1620) 등과도 학문을 토론하며 교류하였다. 또 그가 30세 되던 1567년(명종 22)에는 조부 이도남이 세상을 떠나자 삼년상을 치르며 남명에게 喪制의 예절과 자기를 절실히 하는 요령, 자기 수양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1569년(선조 2)에는 죽각 이광우와 함께 청향당 이원의 九思齋에 방문하여 『성리대전』을 읽었다.<sup>23)</sup>

1572년(선조 5)에는 남명이 세상을 떠나자 心喪하였고 장례를 치른 직후 4월 최영경·하항·손천우·류종지 등과 덕천서원의 창건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겨울 河應圖(1540~1610)의茅屋이 있던 곳을 서원터로 정하고, 1576년(선조 9) 봄 공사를 시작하였다.<sup>24)</sup> 이 과정에서 1574년(선조 7) 남명학파의 좌장격이던 오건 마저 세상을 떠나자 이천경은 동향 출신 권문현·권문임·李光坤 등과 그를 기리는 제문을 지어 보냈다.<sup>25)</sup> 1589년(선조 22) 봄에는 남명의 사당을 참배하고 묘소에 致祭하는 등 스승을 기리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1573년(선조 6) 이천경은 白惟良의 딸 수원백씨와 두 번

---

20) 단성의 합천이씨 가문과 합천의 상주주씨 가문 간의 혼인은 앞서 이천경의 6대조 이사민의 딸이 주복례와 혼인한 바 있고, 주이의 종숙 주세봉이 이천경의 조부와 친우관계였던 것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21) 曹植, 『南冥集』에 의하면, 이 해에 단성 사람 이천경과 고령 사람 김면이 찾아왔다고 한다.

22) 철문관은 남명이 문인들에게 천하에서 제일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이 花柳關門임을 설파한 것이다. 『海東雜錄』 권3, 本朝, <曹植>.

23) 李光友, 『竹閣集』 권2, 附錄, <年譜>.

24) 河澄, 『滄洲先生遺事』 권1, 記, <德川書院重建記>.

25) 吳健, 『德溪集』 年譜 권2, 祭文, <祭文 權文顯 權文任 李天慶 李光坤 韓大成>.

째 혼인을 하였다. 처부 백유량은 이조에 있으면서 이천경을 여러 번 천거하였으나, 그는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일화는 그의 사후 각종 찬술 문자에서 지조와 처사적 면모를 드러내는데 항상 언급되고 있었다.

한편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남명학파의 일원들은 의병으로 창의하였다. 이천경은 1년 전 모친상을 당한 상태여서 의병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재종동생 李慶霖의 창의를 격려하였다.<sup>26)</sup> 이후 그는 어머니의 신주와 제기를 지고 피난길에 올랐으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항상 아침, 저녁으로 上食을 올렸다고 한다. 이천경 사후 그의 행장 및 묘도문자에는 이때의 효행이 항상 빠지지 않고 기록되고 있었다.

정유재란이 일어났던 1597년(선조 30) 그의 나이 60세에는 전쟁을 피해 함경도 함흥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다. 당시 그 지역 백성들은 배우지 못해 교활하고 사나웠는데, 이천경이 3년간 가르침으로써 모두 교화되었다고 한다. 덕산에서 배운 남명의 가르침을 함경도에 전파했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또 守吾堂 吳儻(남명·오건 문인)이 교수관이 되어 함흥에 온 적이 있었는데, 서로 자주 방문하며 우정을 쌓았다. 이천경이 돌아간 뒤 백성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淋流書院을 건립하였다고 한다.<sup>27)</sup>

1599년(선조 32) 전쟁이 끝나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듬해 속세를 떠나 학문정진과 수양처로 林泉에 日新堂을 지었다. 그의

26) 이경림은 광재우 진영으로 가 화왕산성을 지켰다. 郭元甲, 『倡義錄』, <龍蛇應募錄>, “李慶霖, 時澤, 乙丑, 東峯, 居丹城 梧里青峴.”

27) 李天慶, 『日新堂先生文集』 권下, 『家藏』에는 “임류서원, 혹은 沸流水祠라고도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俎豆錄』이나 『增補文獻備考』 및 함흥·영평현 읍지 등에서는 임류서원·비류수사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8, 함경도, 영흥 대도호부에 비류수사가 있으나, 이 사당은 “祀典에 小祀로 기록되어 있으며, 봄가을로 향과 祝文을 내려 제사한다.”고 하여 국가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아마 淋과 沸자의 한자표기상 오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천경의 연보에는 그가 간 곳이 함경도 함흥으로 되어 있으나, 『덕천사우연원록』·묘도비명에는 “北郡 영평현”, 행장에는 “함경도 영평”으로 기록하고 있다. 영평현은 경기도에 속한 행정지명이다. 하지만 앞서 비류수사가 함경도에 위치하고 있었던 만큼, 영평은 함경도 영흥의 오기일 가능성도 있으며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으나 함경도로 피난을 간 것은 확실해 보인다.

호이기도 한 일신당은 湯 임금의 盤銘 “日新 又 日新”에서 따온 말이다. 하항의 종질인 河受一(1553~1612)의 「日新堂記」에 의하면, ‘사람이 舊習을 버리고 새로워진다면 군자이고, 구습에 젖어 새로움을 싫어한다면 소인이므로, 그만큼 새로움이란 중대한 것’이라 하였다.<sup>28)</sup> 즉 그는 날마다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년기 자신의 지향성을 담은 당호로서 일신당을 택한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하항의 「日新堂韻」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日新堂有日新工	日新堂이 日新하는 공부를 하니
然後居堂不愧中	연후에 堂에 거처하면 心中이 부끄럽지 않겠지.
自是惺惺尋上去	이에 스스로 깨달아 향상되어 나아가면
去時須與外人同	세월 흘러 잠깐 사이에 다른 사람 될지이다. <sup>29)</sup>

이천경과 동갑이었던 하항은 부지런히 일신하는 공부를 하면 심증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이어 일신의 공부를 통해 이천경 스스로 깨달아 총명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는 남명이 강조했던 敬義 사상과도 연관되는 대목이다. 남명은 평소 ‘內明者敬 外斷者義’가 적힌 경의검과 惺惺子 방울을 가지고 다녔다. 검에 적힌 문구는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은 경이며,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은 의”라는 것이다. 성성자 방울은 남명이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로 늘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 하항은 스승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공간으로서 일신당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에 이천경은 항상 책상 위에 경서·사서류 등의 책을 두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1603년(선조 36) 어느덧 그의 나이 66세가 되었다. 남명학과 내에서도 원로 격이었던 그는 9월 덕천서원에서 시행된 강론에 참여하였다. 당시 강론은 李光友(1529~1619)·陳克敬(1546~1617)·成汝信(1546~1632)·하수일·李惟誠·河愷(1563~1624)·朴敏(1566~1630)·朴綱(1583~1640) 등

---

28) 河受一, 『松亭集』 권4, 記, <李公天慶日新堂記>.  
 29) 河沆, 『覺齋集』 권上, 詩, <題李祥甫 天慶 日新堂>.

총 52명이 모인 대규모 회합이었다.<sup>30)</sup>

1606년(선조 39) 봄에는 덕천서원에서 향사를 마치고 李澗(1541~1613)·하징·하수일·이광우 등과 함께 서원의 원록을 수정하였다.<sup>31)</sup> 그리고 1609년(광해군 원년) 7월에는 이광우·하징·하수일·이정·정구·鄭蘊(1569~1641)·朴綱(1583~1640) 등과 함께 덕천서원의 원록을 새로이 중수하였다.

이 외에도 그는 남명학파의 인사들과도 종종 만나며 교류하였는데, 동문이자 절친한 벗 하응도는 수개월 동안 일신당을 방문하여 학문을 토론하는 등 평생의 동지로 여겼다. 하응도는 이미 대대로 내려오던 덕산의 田莊을 덕천서원 터로 기부한 바 있고, 1608년(선조 41)에는 진주에서 덕산으로 이거해 온 상태였다. 아마도 이 시기 일신당을 자주 방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김우옹의 형 金宇弘(1522~1590)과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왕래하며 우정을 쌓았다. 후배 격인 박민은 때때로 방문하거나, 또는 편지로 안부를 물어왔고, 같은 고을에 살던 李惟說(1569~1626)·權克亮(1584~1631)<sup>32)</sup>도 찾아와 학문을 배웠다. 이후 1610년(광해군 2) 7월 14일 이천경은 일신당에서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해 10월 儒林葬을 지냈으며 묘소는 진주 서쪽 梧山 三寶谷에 있다.

30) 朴敏, 『凌虛集』 권3, 付祿, <年譜>, “三十一年癸卯, 先生三十八歲, 九月, 與士友會講于德川書院, 李竹閣光友, 李日新堂天慶, 陳栢谷克敬, 鄭上舍承尹, 成淳查汝信, 申伊溪檟, 河松亭受一, 鄭上舍承勳, 李梧月堂惟誠, 河處士光國, 河長水惺, 河滄洲澄, 趙參奉英漢, 趙鳳岡瑑, 李上舍明志, 李參奉毅, 趙主簿英沂, 文上舍弘運, 朴無悶堂綱, 諸賢皆來會其餘又三十二人.”

31) 李澗, 『茅村集』 권3, 「年譜」.

32) 권극량은 1606년 23세 때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배웠던 이천경을 찾아가 인사하고 덕천서원에 들어가 원록을 수정하였다고 한다.(權克亮, 『東山先生文集』 권3, 付祿, <年譜>, “先生二十三歲, 往拜日新堂李公天慶, 陪竹閣李公光友, 松亭河公受一, 入德川修院錄.”)

### Ⅲ. 이천경 사후 추송 활동

#### 1. 이천경에 대한 인식과 기록의 축적

이천경이 세상을 떠나자 그와 교유했던 많은 이들이 추모의 글을 남겼다. 그리고 현재 그의 문집에는 정구·權濤(1557~1644)·하수일·文景虎(1556~1620) 등이 지은 만시와, 吳長(1565~1617)·이유열·권극량·현감 崔琦拊 등이 지은 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들을 통해 남겨진 이들이 평소 고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천경에 대한 당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권극량의 제문을 보자.

아! 공께서는 운유하여 밖으로 어질었고 直方하여 안으로 엄했으며 함께 하면 서도 영합하지 않았고, 확고하여 지킴이 있었으며 장중한 지조와 청숙한 태도는 늙을수록 더욱 돈독했으니 추중할 만하였다. 일찍이 남명 선생의 門에 올라 그 고제인 守愚堂, 覺齋, 寒岡 같은 여러 선생들이 모두 우리 공의 오랜 벗이었음에 능히 스승을 얻고 벗을 얻어 그 志業을 충족했으니 趨向의 분명함을 또한 숭상할 만하였다.

아! 공의 행실은 세속에 모범이 될 만하여 부끄럼이 없었고, 공의 어질은 마땅히 나라에 크게 등용될 만하였으나 끝내 명망을 떨치지 못했으니 이는 무엇 때문인가? 무릇 사람이 道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顯達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命數이다. 그렇다면 소동파가 이른바 “賢者라고 하여 반드시 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말은 참으로 그러한 것인가?<sup>33)</sup>

권극량은 권금석의 셋째 아들 權時準의 현손이자, 동계 권도의 조카였다. 이천경에게는 외삼종질로 1611년(광해군 3) 12월 25일 위의 제문을 남겼다. 내용을 보면 이천경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33) 함천이씨 진서공과 청곡서원, 『國譯, 原文 日新堂 先生 文集』, 2013, 59쪽.; <祭文 權克亮> 번역문 재인용.

첫 번째는 남명학과 내에서 그의 지위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천경은 남명이 산천재에 자리 잡은 뒤 문인이 되었고, 오건·최영경·하항·김우용·정구 등과 함께 교유하였다. 정구는 만사에서 “선생의 문하에서 우리 함께 따랐더니, 사십 년 세월이 한순간에 흘렀구나.”라며 그와 동문으로서 보낸 40년 세월을 추억했다. 이처럼 후학들에게 이천경은 최영경·하항·정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남명의 대표 제자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는 오재 이유열의 제문에서도 확인된다.

“최영경과 하항이 연이어 서거했으니 내 장차 어디를 우러러 보겠는가? … 일신당 가운데서 陋巷의 기상을 체득하고 新安江 위에서 晦庵의 도덕을 상론한 분공이 아니고 누구겠는가?”<sup>34)</sup>

이유열은 최영경·하항 사후 남명학파의 주요 인물로서 이천경을 언급하고 그의 학문이 우수했음을 기술하였다. 신진 후학들이 남명학과 내 원로 격이었던 그를 얼마나 존승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두 번째는 등용되지 못한 안타까움과 처사로서의 삶이다. 권극량은 이천경의 행실이 세속에 모범이 될 만하며, 그의 어짊은 마땅히 조정에 천거될 만하나 그렇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이는 이천경 스스로 처사로서의 삶을 자처했기 때문인데, 그는 1564년(명종 19) 27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 말씀에 따라 과거를 포기한 바 있다. 연보에 의하면, 아버지 이광전이 과거에 합격한 지 1년 만에 요절하자 어머니는 그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후에도 이천경은 유일로 여러 번 천거되었으나 매번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한편 인조가 즉위한 1623년 이천경은 공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이후 그의 후손들은 이천경과 관련된 각종 기록들을 종합·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출발은 弦窩 李蔭(1593~1668)가 행장·摭言을 지은 것에서 시작한다. 양녕대군의 6세손인 이도는 이십 대에 형과 아들을 데리고 영남으로 내려와 초계에 정착, 이내 고령으로 이거하였다. 그가 행장·척언을 작성하

34) 李天慶, 『日新堂先生文集』 권下, <祭文 梧齋 李惟說>.

게 된 배경은 바로 이천경의 손자 李亨源과의 교우관계 때문이었다.<sup>35)</sup> 본래 이형원은 이천경의 손자로, 합천에 있던 李胤緒(1574~1624)에게 출계하였다. 이운서는 단성 입향조 이운호의 장자인 이사방의 6대손이다. 이형원은 李大期(1551~1628)의 문인으로 일찍이 과업을 포기하고 이도(고령 居)·柳晦根(초계 居)·呂孝曾(1604~1679, 성주 居) 등과 교유하였다.<sup>36)</sup>

이도는 행장에서 선대의 내력과 이천경의 어린 시절 성품, 임진왜란 당시 모친상을 지내면서 보여준 효행, 함경도 지역의 문풍교화, 일신당에서 공부에 매진한 점, 출사하지 않고 처사로 지낸 점, 남명 문하의 당대 명사들이 추증한 사실을 기술하였다. 이어 이천경 사후 정구·권도·오장·이유열의 추모 문자, 하수일의 「일신당기」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천경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

선생은 林下에 은둔하여 영달을 구하지 않고 事親에 成孝했다. 학문에 전념하여 성리의 심오한 이치를 널리 연구하여 경의 공부를 지극히 실천했으니 도를 터득하고 덕을 온전히 이루었다.<sup>37)</sup>

척언은 행장의 내용 중 핵심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 중에는 특히 남명학파로서 그의 지위와 학문 자세에 대한 부분이 눈여겨볼 만하다.

공은 천성이 고결하여 산처럼 우뚝하고 옥처럼 투명했으니 남명 선생 문하에서 수업할 때 선생의 愛敬함이 한강·수우당·각재와 대등하여 모두가 추증했다. ... 언제나 별당에서 의관을 갖추고 단정히 앉아 옛 성현의 책을 보면서 비록 큰 추위와 심한 더위에도 기대거나 흐트러진 모습이 없었다. 이는 참으로 경의로써 안을

35) 이천경과 이도 사이에는 간접적으로 척연관계도 형성되어 있었다. 이천경의 첫째 딸이 鄭承先에게 출가하였고, 정승선과 이도가 同壻 관계였던 것이다. 정승선의 또 다른 부인이 李大期(1551~1628)의 장녀였고, 이대기의 막내딸이 이도에게 출가하였다(李種杞, 『晚求先生續集』 권8, 墓碣, <弦窩李公墓碣銘>).

36) 『陝川李氏大同譜』, 뿌리정보미디어, 2005.

37) 李天慶, 『日新堂先生文集』 권下, 「行狀」.



곧게 하고 밖을 바르게 하여 부단히 매진하는 공부가 있지 않다면 어찌 이와 같겠는가? 日新을 당호로 삼은 까닭을 참으로 속일 수가 없다.

당대인들은 이천경을 최영경·하항과 함께 남명의 주요 문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남명의 경의 사상과 연결 지어 학문을 실천함으로써, 부지런히 공부한 결과 흐트러짐 없는 공부 자세로 발휘될 수 있었다고 여겼다.

이후 그와 관련된 기록은 葛菴 李玄逸(1627~1704)이 지은 묘도비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38)</sup> 이현일이 작성하게 된 배경은 이천경의 증손 李思曾과 족질 李萬亨의 청에 의해서였다.<sup>39)</sup> 이들은 이천경의 實記를 들고 이현일을 찾아가 가세가 불행하여 여러 번고가 거듭된 탓에 묘도비문을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당시 이현일은 ‘죄인의 몸으로 끝내 사양하지 못했다’라고 하였는데, 1699년(숙종 25) 갑술환국 이후 광양 배소에서 환향하던 중 1년간 진주에 우거했을 때 글을 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우도에서는 진주·거창·밀양 등지에서 약 40여 명이 이현일의 문인이 되었다. 그중에는 조식의 5세손 曹希點 등을 포함하여 남명학파 내 핵심 인물의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승 관계 외에도 이현일은 최영경·김우옹·곽재우 등 남명의 주요 문인들과 정인홍 문하를 출입했던 이들의 전기류까지 찬술해줌으로써 우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sup>40)</sup> 이천경의 묘도비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작성되었다.

비명의 내용은 행장과 대동소이하나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으니 바로 정인홍과 절교했던 사항이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처음에 정인홍과 동문수학한 인연이 있었으나 일찍이 정인홍 부자의 언사와 기운이 공손하지 못함을 보고서 드디어 정인홍과 절교하였다. 후에 정인홍이 윤리와

38) 李天慶, 『日新堂先生文集』 권下, <有名朝鮮處士日新堂先生墓道碑銘 李玄逸>.

39) 이만형은 이천경-李瑚-李時挺-李思愼의 아들이고, 이사증은 이천경-이영-李時馨(7子)의 장자이다.

40)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370~372쪽.

기강을 무너뜨려 죄를 받았으니 대개 처사의 올바른 판단이 이와 같았다.<sup>41)</sup>

이와 관련하여 이천경의 연보에도 1605년(선조 38) 68세에 정인홍과 절교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행장에는 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작성시기가 인조반정 이후라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정인홍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려 했거나, 동문으로서의 인식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통상 정인홍과의 단절은 회퇴변척이나 폐모살계 등을 계기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천경은 그 전인 1610년에 사망했으므로 그의 생전에는 동문으로서 유대관계가 깊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현일이 문자를 찬술해준 시기는 상황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현일은 정인홍과 관련된 이들의 문자를 찬술해줄 때 그 관계를 일체 함구하는 형태로 부정하고 있었는데,<sup>42)</sup> 찬술 문자는 청탁자들이 가져오는 초고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후손들이 정인홍과의 관계를 부정하고자 하는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보의 절교 기록도 정인홍을 부정하려는 후대의 인식이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은 18세기 중후반 艮翁 李獻慶(1719~1791)의 묘갈을 통해 축적되었다. 이천경이 글을 짓게 된 계기는 앞서 이도에게 행장을 부탁했던 이형원의 5대손 李東壁(1745~1819)의 청에 의해서였다. 이동벽은 평소 鄭宗魯(1738~1816)·崔興璧(1739~1812) 등과 교류

41) “始與鄭仁弘有同門之契，嘗見其父子間有悖慢辭氣遂與之絕，後仁弘卒以得罪倫紀敗蓋，其明斷又如此。”

한편 1605년 연보에 의하면 동문이었던 정인홍이 손자의 관례식날 빈객으로 그를 초대하였다. 이천경은 아들 李瑛을 대신 보냈는데, 아들이 귀가하여 말하기를, 정인홍 부자의 언사와 기운이 거칠다고 하였다. 이에 그는 편지를 보내 절교하였으며, 후에 인조반정으로 정인홍이 처형당하자 사람들이 그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고 한다.

또 李瑛, 『紫圃實記』 권1, 「年譜」에 의하면, 이천경의 둘째 아들 李瑛은 1623년 3월 25일 文慶晉·金秀南·崔起宗·李廷序·盧(土+堧)·李蘭貴·羅尙徵 등과 함께 인목대비 유폐를 주장한 北堂의 12흉도들을 참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고 한다.

42) 김학수, 앞의 논문, 374~375쪽.

하는 한편<sup>43)</sup> 선대 조상의 기록들을 수집·현창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합천 옥계사에 제향된 이희증·이희민·이희안·이윤서·이윤검의 실기 발문은 정종로에게 청했고, 이천경의 묘갈은 이현경에게 청한 것이다.<sup>44)</sup>

한양에서 태어난 이현경은 1790년(정조 14) 한성관윤을 지낼 때 「陝川郡戊申平難事蹟碑文」을 지은 인물이기도 하다. 비가 세워지기 전인 1788년(정조 12)은 무신난이 일어난 지 일주갑이 되던 해였다. 정조는 이를 기념해 무신난 진압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신원해주었고, 영남의 경우 특별히 의병 사적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였다.<sup>45)</sup>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자 합천의 선비들도 서울로 사람을 보내 이현경에게 글을 부탁한 것이다. 아마 상경 인원 중에는 이동벽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현경의 묘갈명도 이때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현경이 지은 묘갈의 일부분을 보자.

남명 조 선생의 학문을 경의를 아울러 지냈고 千仞壁立 하였으니 그 문하의 어진 이로는 鄭寒岡·崔守愚가 당시 제일 유명하였다. 李處士天慶 字 祥甫는 효행으로 알려져 남명 선생의 칭찬을 받았으니 정·최 두 선생이 서로 推重하여 막역한 벗이 되었다. … 사람이 또한 단성 淸谷에 사당을 건립하고 향사를 드리며 공경한다. … 46)

인용문에는 먼저 남명의 경의사상과 천인벽립한 기상을 언급하고, 이천경이 그런 남명에게 칭찬받은 사실, 남명의 대표 제자인 정구·최영경과 막역한 벗으로 지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은 행장·묘도비에서도 확인되지만, 차이점이라면 글의 첫 시작점에 이 부분을 서술했다는

43) 합천이씨 족보에 의하면, 이동벽은 이현경의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문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상경한 것인지, 상경 후 문인이 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44) 鄭宗魯, 『立齋集』 권13, 跋, <玉溪祠五賢實紀跋>.

45)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4월 5일 기사.

46) “又, 南冥曹先生之學, 敬義夾持壁立千仞, 其徒之賢者, 鄭寒岡崔守愚取有名于時, 李處士天慶字祥甫以, 孝特聞爲先生所推誦, 鄭崔二賢相引重爲莫逆交云, … 丹城淸谷亦立祠, 士林俎豆致敬焉.”

것이다. 이는 그만큼 남명학파의 주요 인물로서 이천경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18세기 말은 1790년·1797년(정조 21) 남명묘종사소가 올라가는 등 남명 추숭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도 일정부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글 후반부에는 이천경을 제향하는 사당이 청곡에 세워졌음을 간략히 추가하였다.

## 2. 청곡서원의 건립과 문집 발간

1610년 이천경 사후 그를 추모하는 공간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李時鰲(1588~1663)의 「丹城誌」에 의하면 고을 유림들이 제사 지낼만한 분으로 일신당을 꼽았다고 한데서 당시의 여론을 알 수 있다.<sup>47)</sup> 또 오건·최영경의 문인 李賀生(1553~1619)은 이천경의 사당을 지날 때면 밤이라도 반드시 말에서 내렸다고 한다.<sup>48)</sup> 이하생은 이천경 사후 약 9년 뒤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때의 사당은 가묘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약 100여 년이 흘러 1702년(숙종 28) 고을 유림들은 그를 제향하는 淸谷祠를 건립하였다.<sup>49)</sup> 이천경의 연보에는 청곡서원이 건립되었다고 하나 1763년(영조 39) 작성된 『열읍원우사적』, 정조 연간 작성된 『조두록』 등에는 淸谷鄉賢祠, 淸谷鄉祠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에는 사당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당의 건립 배경에는 당대 이천경의 후손들이 가지는 위상도 일정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천경의 후손들은 1699년 진주에 우거했던 이현일로부터 묘도비문을 받았다. 그리고 1700년(숙종 26) 우도 유림들에 의해 『남명집』 개간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별집 李祥甫(이천경) 조에 이현일의 묘도비명이 수록된다. 이현일

47) 李時鰲, 『雲鰲先生文集』 권2, 雜著, <丹城誌>, “鄉人稱, 可祭於社者言, 必曰日新堂.”

48) 李天慶, 『日新堂先生文集』 권下, <遺事集錄>, “李梅月堂賀生, 愷悌人也, 誠信人也, 欽慕先生之德行誠義, 過遺廟, 雖夜必下馬, … 出邑誌.”

49) 『增補文獻備考』 권213, 各道祠院, 丹城 “淸谷祠宇, 肅宗, 壬午年, 本朝, 李天慶”.

이 남명 문인에 대해 쓴 글은 여러 편 있지만 「별집」에는 오직 이천경의 묘도비명만 수록된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아 당시 이천경의 후손들은 『남명집』 개간에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었거나, 다른 유림들로부터 묘도비문 수록에 대한 동의를 얻을 정도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sup>50)</sup>

이렇게 『남명집』 개간이 있고 2년 뒤 청곡사의 건립이 시작되었다. 일신당이 있던 청현 옛 터에 사당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름은 사당이 위치한 골짜기 명을 따서 청곡이라 하였다.<sup>51)</sup> 지리적으로는 남·북으로 남명을 제향하는 삼가 용암서원과 진주 덕천서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봉안문」에는 이를 두고 “앞뒤로 상상컨대瞻仰 하리니, 스승 곁에 오르내리며 우리 후학 인도하리.”라 하였다.<sup>52)</sup> 인조반정 이후 남명학파가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하나, 이천경을 사모하는 후학들은 학문적으로 여전히 남명을 계승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청곡사는 1796년(정조 20) 동향 출신 陽村 柳之遠(1634~1710)을 추향하였다.<sup>53)</sup> 유지원은 당대 효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1760년(영조 36)~1786년(정조 10)까지 일대 유림들이 유지원의 褒獎을 청하는 정문을 현감, 巡相, 암행어사 등에게 끊임없이 올렸다.<sup>54)</sup> 이에 1779년(정조 3) 암행어사의 보고로 조정에 旌表할 만한 인물로 추천되기도

50) 김준형, 앞의 책, 168쪽.

51) 李天慶, 『日新堂先生文集』 권上, 「年譜」, “毅宗皇帝, 崇禎, 紀元後, 壬午, 月日, 道內士論齊發建祠于青峴遺址, 虔修禋禮以每歲仲春仲秋中丁之日, 薦享豆簋, 祠號百源院號清谷”. 연보에는 승정 기원 후 임오년(1642)으로 되어 있으나, 『日新堂先生文集』 권下, <清谷書院院宇開基文>을 작성한 孫命來(1664~1722)의 생몰연대를 고려하면 1702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52) 李天慶, 『日新堂先生文集』 권下, <奉安文>. “酒建棟宇有翼有儼, 南望德川, 北顧龍岩, 在而在後, 想有瞻忽陟降函丈啓佑後學.”

53) 『嶠南誌』 권55, 丹城郡, 敎院, “清谷書院, 在郡東十五里, 肅宗壬午建, 享日新堂李天慶, 正祖內辰追享, 陽村柳之遠.”; 鄭宗魯, 『立齋集』 권35, 碣銘, <陽村處士晉山柳公墓碣銘 並序> “後又躋享公於清谷祠, 此其榮豈一時人爵之比哉.”

54) 柳之遠, 『陽村先生實紀』 권3, 附錄, <陽村先生實紀>·<呈本縣狀 戊戌八月日>·<呈巡相狀 戊戌九月日>·<呈本縣狀 戊戌十月日>·<呈巡相狀 戊戌十一月日>·<呈繡衣狀 己亥十一月日>·<呈巡相狀 丙午十二月日>.

했다.<sup>55)</sup> 이천경 역시 생전에 효행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두 인물의 후손들은 대체로 남인계라는 공통성도 있었다.<sup>56)</sup> 또 당시 조정의 원사 신설 금지 정책도 있었기에 유지원 단독 사당의 건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sup>57)</sup> 이에 고을 유림들은 우선 청곡사에 추향하고 후에 단독으로 제향할 수 있는 사당 건립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현감은 조정의 금지 정책에 따라 유지를 단독으로 제향하는 사당 건립을 허락하지 않았다.<sup>58)</sup>

유지원 추향 이후 1851년(철종 2) 李相義가 쓴 「청곡서원기」가 있어 청곡사는 대략 19세기 전반 서원으로 승원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청곡서원기」에는 1702년 사당을 세워 百源祠라 하고 그 앞에 건물지어 堂은 敬義齋, 동재는 德盛齋, 서재는 尋向齋, 뜰에는 三門을 세우고 이 모두를 합하여 청곡서원이라 했다고 한다. 아마도 1702년 사당을 세우고 「청곡서원기」가 쓰여지기까지 순차적으로 건물들을 건립하고 서원으로 불린 듯하다.<sup>59)</sup>

한편 19세기 전반 청곡서원은 사회적으로 입지가 약화되고 있던 단성 사족들의 향촌 내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단성은 과거 향안 작성이 중단된 이래 입록자의 자손들끼리 향안을 매개로 서로 연대하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향안에 변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완문과 절목까지 작성하였으며 매년 정월 16일 奉審鄉會 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1850년대 무렵 향안봉심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

55) 『정조실록』, 정조 3년(1779) 6월 14일 기사.

56) 유지원의 4대손인 柳象經은 정종로에게 유지원의 묘갈을 받았다(鄭宗魯, 『立齋集』 권35, 碣銘, <陽村處士晉山柳公墓碣銘 並序>).

57) 『정조실록』 정조 7년(1783) 10월 29일(정해) <비변사에서 올린 제도 어사 사목>에 의하면, 향현사 및 서원·영당에 대해 금법을 무릅쓰고 창설하는 것은 慕賢하는 성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창건을 주장하여 논한 사람도 준엄하게 형벌하여 멀리 귀양 보내야 하고, 신척하지 않은 수령도 또한 논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58) 柳之遠, 『陽村先生實紀』 권3, 附錄, <呈本縣請立祠狀 朴奎祥等一百九十五人>.

59) 1702년 사당을 세워 백원사라 했다고 하나 이 명칭은 <청곡서원기>에서만 확인된다. 다른 사료들에서는 모두 청곡사, 청곡향현사, 청곡향사 등으로 되어 있어 아마도 청곡서원으로 승원한 뒤 사당 명칭이 백원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 청곡서원에서는 각 향안 본손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통문을 발송하였다. 또 1853년(철종 4)에는 현감 李彙溥가 해마다 향교와 단성내 7개 서원이 돌아가면서 향음주례를 시행하도록 하였다.<sup>60)</sup> 당시 7개 서원은 도천·청곡·완계·목계·배산·신계·문산서원으로 보이며<sup>61)</sup> 향촌 교화 기구로서 서원의 역할과 이를 통한 사족들의 향촌 내 영향력 강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865년(고종 2)에는 강당과 묘우 중수가 이루어졌다. 중수에 필요한 경비는 문중 일원들에게 통문을 보내 기부를 받거나 관아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았다. 또 후손 중 남인에 속했던 李邦儉(1798~1865)은 단성의 노론 가문인 안동권씨 상암공파 權秉天(1805~1873)에게 중건업무의 총괄을 부탁한 바 있다.<sup>62)</sup> 이는 결국 당색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 사족들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원 중수가 있고 얼마 되지 않아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서원은 훼손되고 말았다. 이후 1922년 유림들이 복원을 논의하여 1924년 廟宮을 완공하였다.<sup>63)</sup>

한편 청곡서원에서는 1855년(철종 6) 『일신당집』을 간행하였다. 약 240여 년이 흐르면서 이천경의 시문은 병화와 변란으로 거의 유실되었고, 간간이 前賢의 문집 중에서 한두 편 보일 뿐이었다. 이에 실제 문집에도 이천경의 작품은 시 2수와 김우홍·하응도의 제문이 전부이다. 이천경의 8대손 李宜璿(1747~1815)은 이를 안타까워하며 흩어진 遺文을 수습하기 시작했다.<sup>64)</sup> 그리고 이 작업은 그의 둘째 아들 李緯儉(1781~1857)과 李

60) 김준형, 앞의 책, 189~192쪽·196쪽.

61) 1861년 10월 24일 단성현 내 향교·서원의 원일이 단성현감에게 보낸 품목이 있는데, 여기서도 7개 서원이 확인된다. 이들은 향교와 서원 토지는 환곡을 받지 않는 규례가 있으므로 환곡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조선시대 경남인의 삶과 행적』, 화인, 2016, 187쪽, 「稟目」).

62) 李邦儉, 『道淵述言』 권9, <清谷書院講堂重修告由文>·<清谷書院廟宇重補後還奉祝文>. ; 권7, <通僉宗文>. ; 『青峴李氏四世合稿』 권1, <道淵述言>, 與權惟一秉天. ; 이방검은 이천경의 직계손으로 이천경-李瑚-李時挺-李思愼-李萬亨-李噉瑞-李命宅-李元極-이방검(2子)이다.

63) 張錫英, 『晦堂集』 권28, 記, <清谷書院重建記>.

元永(1787~1862), 이방검 등이 이어 추진하였다.<sup>65)</sup>

이들은 이천경의 시문을 포함하여 그의 사후 기록들, 각종 읍지류 및 청곡서원 건립 당시 상량·봉안문 등을 수집하였다. 여기에 남명 문인록과 이천경의 증유록까지 더해 문집의 체제를 갖추었다. 이때 교감은 盧光履(1775~1856)·李佑贊(1792~1855)·李遇가 맡았다.<sup>66)</sup> 이중 노광리는 이미 이의선으로부터 문집 간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워함을 본 적이 있었고, 이우는 묘도비문을 써준 이현일의 후손이었다. 이러한 연고로 두 사람은 문집의 발문도 작성하게 된다.

이들이 활동하던 19세기 전반은 남명 추송작업이 활발히 일어나던 때였다. 1817년(순조 17)에는 남명이 기거했던 산천재를 준공하였고, 1814년(순조 14)·1827년(순조 27)·1852년(철종 3)에는 남명문묘종사운동이 있었다. 문집 간행을 주도한 이방검이나 교감에 참여했던 이우빈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1827년(순조 27) 남명문묘종사소가 있을 때 이우빈은 배소인으로 한양까지 동행한 바 있다.<sup>67)</sup> 이후 1852년 문묘종사소에는 청곡서원도 동참하고 있었다.<sup>68)</sup>

특히 문집이 간행되던 1855년은 『남명집』 개간 작업이 한 번 더 시도된 해이기도 하다. 당시 이방검은 덕천서원의 원임으로서, 여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이때의 개간은 목판이 판각된 지 오래되어 소실되거나 훼손된 것이 많으므로 새로 판각하는 것과 續集을 新增하는 것이었다. 또 각 연원가에 수소문하여 기존 『남명집』에 수록되지 못한 글들도 수집하려 했다. 이에 이방검은 덕천서원의 이름으로 각 문중과 연원가에 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후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덕천서원 산

---

64) 盧光履, <日新堂先生文集跋>. 이의선은 이현경에게 묘갈을 청한 이동벽의 동생으로, 본래 거주지는 함천이었다. 이후 이천경의 7대손 李命壽의 아들로 출계하면서 단성에 거주하였다.

65) 이의선은 이천경-李瑛(2子)-李時蕃(3子)-李思玄(3子)의 현손이고, 이원영은 이천경-李瑚-李時挺-李思訥(3子)의 현손이다.

66) 李遇, <日新堂先生年文集跋>.

67) 李佑贊, 『月浦集』 권5, 附錄, <行狀>.

68) 李邦儉, 『道淵述言』 권9, <清谷書院通德川書院文> 任子五月二十日.



장 權大肯에게 교감을 부탁하려 상경 유생을 차출했는데, 이 역시 이방 검이 주도하고 있었다.<sup>69)</sup>

『남명집』 개간 사업은 우도 일대 유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지만 특히 단성 지역 사족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남명학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도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단성 지역 사족들은 서로 협조하며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남명의 대표 문인이었던 이천경의 문집 간행과 청곡서원 중수 역시 당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 IV. 맺음말

이천경의 가문은 그의 7대조인 이운호가 단성 소이곡에 정착하면서 대대로 이 일대에 세거하였다. 그는 1538년 단성현 원당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조부에게 천자문을 배우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10대 초반은 상장례에 전념하였다. 그가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15세 무렵이며, 20세에는 남명을 찾아가 문인이 되었다. 이후 같은 동문이었던 오건·최영경·하항·김우옹·정구 등과도 학문을 토론하며 교류하였다. 1672년 남명이 세상을 떠나자 동문들과 함께 덕천서원 창건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천경은 학문 못지않게 효행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모친상 중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신주와 제기를 지고 피난길에 올랐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렸다. 또 정유재란 때에는 함경도로 피난하여 일대 백성들을 학문으로 교화시켜주었다. 전쟁이 끝나고는 고향으로 돌아와 일신당을 짓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노년기 그는 남명학파의 원로로서 동문 후학들과 교류하는 한편 덕천서원에서 강론에 참여하고 원록을 수정한 바 있다.

---

69) 김준형, 앞의 책, 169~170쪽.

1610년 이천경이 세상을 떠난 뒤 많은 이들이 그를 기리는 만시·제문을 지어왔다. 이러한 글 속에는 남명학과 내에서 최영경·하항에 버금가는 그의 지위와 처사로서의 삶이 강조되고 있었다. 남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천경은 역시 조정의 추천에 끝내 나아가지 않으며 일생을 처사로 살았다.

인조반정 이후 그에 대한 추증이 이루어지자 후손들은 이천경과 관련된 각종 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7세기 중반에는 이도가 쓴 행장·적언이 있으며 17세기 말에는 이현일이 쓴 묘도비문이 있었다. 여기서 특징은 행장에 보이지 않던 정인홍과 절교한 내용이 묘도비문에 수록된 것이다. 이후 18세기 중후반 이현경의 묘갈에서는 남명학과로서 이천경이 강조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천경 사후 그를 추모하는 공간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처음 시작한 가묘 형태였다가 1702년 청곡사로 건립되었다. 당시 사우 건립 배경에는 이들 가문이 가지는 지역 내 위상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699년 이현일로부터 묘도비문을 받고, 1700년 『남명집』 개간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남명 문인 중에는 유일하게 이천경만 이현일의 묘도비문이 수록된 것이다. 이후 청곡사는 1796년 동향 출신 유지원을 추향하고, 19세기 전반 서원으로 승원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곡서원에서는 19세기 향촌 내 사족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일환으로 봉심향회에 대한 통문 발송 및 단성현감 이휘부의 명에 의해 향교와 단성현 7개 서원이 매년 돌아가며 향음주례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1855년 서원에서는 이천경의 문집인 『일신당집』을 간행하였다. 이 작업은 이천경의 8대손 이의선과 그의 둘째 아들 이위검, 같은 문중의 이원영·이방검 등이 추진하고 교감은 노광리·이우빈·이우가 맡았다.

이들이 활동했던 19세기 전반은 남명현창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교감에 참여했던 이방검, 이우빈 등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는데, 남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우도에서 이는 곧 그들이 향촌 내 여론을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기반으로 그들은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결속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천경 사

후 추승 활동은 당대 이러한 배경 아래 함께 진행되었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23년 02월 0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2월 27일부터 03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3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世祖實錄』 『光海君日記』 『正祖實錄』 『海東雜錄』 『增補文獻備考』 『雲窓誌』 『嶠南誌』

郭元甲, 『倡義錄』  
權克亮, 『東山先生文集』  
柳之遠, 『陽村先生實紀』  
朴敏, 『凌虛集』  
吳健, 『德溪集』  
李防儉, 『道淵述言』  
李象靖, 『大山集』  
李時積, 『雲總先生文集』  
李彥迪, 『晦齋集』  
李瑛, 『紫圃實記』  
李佑贊, 『月浦集』  
李楨, 『龜巖集』  
李瀟, 『茅村集』  
李天慶, 『日新堂先生文集』  
張錫英, 『晦堂集』  
鄭宗魯, 『立齋集』  
趙秉惠, 『肅齋集』  
曹植, 『南冥集』  
周怡, 『二樂堂先生逸稿』  
河受一, 『松亭集』  
河澄, 『滄洲先生遺事』  
河沆, 『覺齋集』

김준형, 『조선후기 단성 사족층연구』, 아세아문화사, 2000.

- 남명학연구원, 『산청지역의 남명학과 I』, 예문서원, 2022.
- 이상필, 『남명학과의 형성과 전개』, 와우출판사, 2003.
- 李天慶, 『國譯, 原文 日新堂 先生 文集』, 합천이씨 전서공과 청곡서원, 2013.
- 『陝川李氏大同譜』 권3, 典書公派, 뿌리정보미디어, 2005.
- 강정화, 「『日新堂集』 解題」, 『南冥學研究』22,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6.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박소희, 「산청지역 남명학과의 규모와 동향」, 『민족문화논총』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The Life of Ilshindang Lee Cheon-kyoung and The Later Worship Activities for Him

Park, So-hee

Ilshindang(日新堂) Lee Cheon-kyoung(李天慶) was a follower of Nammyeong who lived in Danseonghyeon during the Choseon era. He made friendships with Oh Geon, Choi, Young-kyoung, Ha, Hang, Kim, Woo-hong, Jeong, Gu, and Ha, Eung-do in the same school, and they discussed the establishment of Deokcheon Seowon in honor of his teacher after Nammyeong's death. He also participated in the lecture and reconstruction of the Wonrok in the Seowon. In his later years, he built Ilshindang and devoted himself to academic research, and Park, Min, Lee, Yoo-yeol, and Kwon Geuk-ryang learned from him.

When Lee, Cheon-kyoung passed away in 1610 (the 2nd year of King Gwanghaegun's reign), many people from Nammyeong School sent messages of condolence. In these writings, Lee, Cheon-kyoung was recognized as a major follower figure of Nammyeong, comparable to Choi, Young-kyoung, and Ha, Hang, and it included regrets the fact that he had extraordinary talents but did not hold a governmental post.

When Lee, Cheon-kyoung was posthumously promoted to the Gonjo panseo in 1623 (the 1st year of King Injo's reign), the related records, such as his whereabouts and letters of remembrance and condolences, began to be compiled. Lee, Do wrote the biography and cheokon, Lee, Hyoun-il wrote the epitaph, and Lee, Heon-kyoung wrote Myogal. Lee, Hyoun-il's epitaph emphasized the disconnection with Jeong, In-hong,

while Lee, Heon-kyoung's Myogal emphasized Lee, Cheon-kyung as a member of Nammyeong School at the beginning of the writing.

Meanwhile, a space in memory of Lee, Cheon-kyung began to be built. In 1702 (the 28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the Confucian scholars of Danseong established Cheonggoksa to commemorate him. Then, it was promoted to Cheonggok Seowon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and its reconstruction was carried out in 1865 (the 2nd year of King Gojong's reign). Cheonggok Seowon was helping to strengthen the influence of the local upper classes in their villages, which were weakening then. In addition, in 1855 (the 6th year of King Cheoljong's reign), Ilshindangjip was published, and Lee, Bang-gum, who was in charge of it, was also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republishing of Nammyeongjip and the movement to try to worship Nammyeong in Munmyo. In other words, the publication of the collection of works by Lee, Cheon-kyoung, a main figure of the Nammyeong School, and the reconstruction of Cheonggok Seowon were in conjunction with the commemoration project of Nammyeong in the 19th century.

**keywords :**

Lee, Cheon-kyoung, Lee Clan of Habcheon, Namyeong School, Ilshindangjib, Cheonggok Sewon

